

HD현대

HD HYUNDAI MAGAZINE

2025

SPRING

“HD 로고 어디서 다운받아?”



HD BRAND BAY HD BRAND BAY H

HD
BRAND BAY

HD브랜드베이는 그룹사 통합 브랜드센터로 로고부터 서식류, 미디어 콘텐츠 제공 등 효율적인 관리와 업무 지원을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https://hd-brandbay.com>

접속방식

DUONX 영역 내 아이콘으로 접속

가입신청

가입 시 그룹 도메인 메일 계정(@HD.COM)으로 등록

기타문의

HD한국조선해양 브랜드디자인팀





HD현대의 길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가능에서
가능을 찾고,
도전 속에서
혁신을 이루며,
오늘의 땀을
내일의 결실로
만들어온 HD현대.

활작 핀 봄꽃은
HD현대 임직원의
열정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HD현대의 길은
미래로 향해갑니다.

HD현대 봄호

발행일 2025년 4월 11일(금)
발행처 HD현대중공업 문화홍보부

HD HYUNDAI MAGAZINE

2025

SPRING

FOCUS	HD하이라이트	04
HD INSIDE	HD 돌보기	08
	미래를 여는 HD	14
	현장을 가다	16
	HD현대삼호 멤브레인공사부 LQC팀	
	HD현대중공업 페루지사	
	오피스 인터뷰	22
	HD현대사이트솔루션 굴착기개발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24
	HD현대마린솔루션 글로벌디지털센터	
	스타(★) 플레이어	26
	HD마이스터대학 4기 수석졸업생	
	채용형 인턴 입사 사우	
	HD 살펴보기	30
	HD 업(業)데이트	32
	조선 부문	
	미라클 HD	34
	드림플레이스	
	착한 건설기계 훈장 수여	
	HD SNS 픽	36
	HD현대 다크, '최초의 질문'	
	우리네 이웃	37
REFRESH	인사이트	40
	건강 / 심리 / 트렌드	
	사랑을 나눕시다	46
	로컬 재발견	48
	강화도 봄 여행	
	HD 툰(TOON)	52
	사우 참여마당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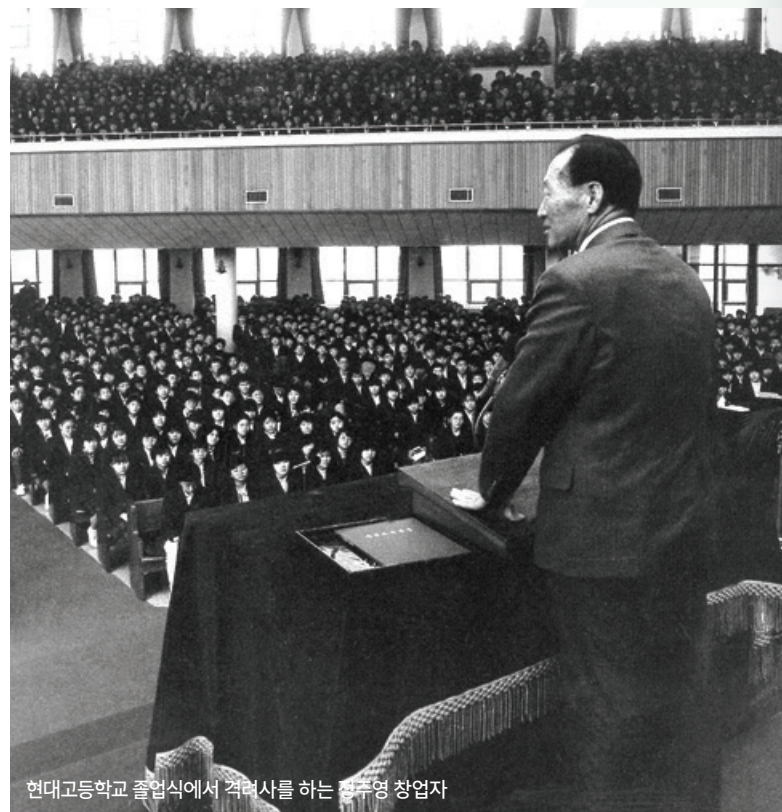
01

봄날처럼 따뜻했던 정주영 창업자

기업 경영으로 분주한 중에도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정주영 창업자를 추억한다



서울아산병원



한대고등학교 졸업식에서 격려사를 하는 정주영 창업자



1977년 아산재단 설립 기자회견장



1979년 아산 장학생으로부터 헌시를 받는 峨山

의료와 사회복지: 아픔에 손을 내밀다

“세상을 밝게 맑게 바르게 보고 이 사회에 보탬이 될 목적으로 살면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 아산 정주영 창업자는 전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에서 남다른 개척정신으로 HD현대,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을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이다. 그는 구두에 징을 박아 닳고 닳도록 신고 다닐 정도로 검소했지만,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신념을 갖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정주영 창업자는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과 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고민들을 시작했다.

‘복지’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1969년 지역 사회 교육 운동에 나섰고, 1977년에는 현대건설의 개인 주식 50%를 출연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자.” 이 한마디가 그의 나눈 철학을 대변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설립 이래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건네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왔다. 또한 그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벽지에 병원을 설립해 의료 복지를 실현했다.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다섯 곳에 병원을 세워 지역 사회 의료 사업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특히, 1989년 문을 연 서울아산병원은 그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다.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꿈꿨던 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아픈 이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선물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의료 복지를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수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고 있다.

교육을 통한 희망의 씨앗 심기

정주영 창업자는 교육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믿었다. 1969년 그는 ‘지역 사회 교육 운동’을 통해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했다. 당시 한국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30%에 미치지 못했고,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학교 시설이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언제 나라가 발전하겠느냐”며, 1969년 재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혜화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등에서 취미 교실과 방과 후 학습을 운영하며 지역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누구보다 앞장선 정주영 창업자는 “돈·자원보다 중요한 건 인재”라며,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온 세계의 자원과 재원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철학 아래 그는 장학 사업을 통해 유능한 학자들을 양성하고, 학문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했다. 정주영 창업자가 심어 놓은 이 꿈의 씨앗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고 있다.

02

아산(峨山)의 정신

HD현대는 정주영 창업자의 24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가졌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자

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질 무렵 떠오르는 이름, 아산 정주영 창업자. 그는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었으며, 특히 조선산업의 개척자로서 발자취를 남겼다.

1972년 3월 23일, 울산 동구 미포만에서 열린 '현대조선조선소' 기공식은 단순한 조선소 착공 행사가 아니었다. 당시 한국은 조선산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였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받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그는 미포만에서 조선소 건설을 선포하며,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창업 이후 수많은 위기와 난관이 있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하면 된다'는 신념과 창조적 예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대한민국을 조선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게 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창업자의 강인한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그의 기업이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세계적 위상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룹 경영진, GRC서 24주기 추모 행사

HD현대는 지난 3월 21일(금) 정주영 창업자의 24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 HD현대 글로벌R&D센터 (GRC) 5층 청운홀에서 열린 이번 추모식은 창업자의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사와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했으며, HD현대 권오갑 회장을 포함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창업자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갑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창업자님의 흉상을 모신 청운홀은 창업자님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창업자님의 정신을 본받아 HD현대를 국가와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정기선 수석부회장도 조부인 정주영 창업자의 일화를 떠올리며 "창업자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 강인한 실행력은 HD현대가 꿈꾸는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청운홀의 창업자 흉상 앞에서 헌화를 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HD현대 임직원과 방문객들도 자유롭게 헌화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많은 이들이 창업자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울산과 영암에서도 추모 물결

같은 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삼호에서도 창업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진행했다. 울산에서는 HD현대중공업 본관 1층 로비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 추모문 낭독이 이루어졌고,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노진율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해 창업자의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임직원들도 헌화하며 창업자를 기리는 뜻깊은 시간에 동참했다.

이날, 전라남도 영암 HD현대삼호 본관 1층 로비에서도 김재를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창업자 흉상 앞에 모여 추모식을 가졌다. 김재를 사장은 "따스한 봄날이 다가오니 창업자의 통찰력과 리더십이 더욱 그리워진다"면서 "그가 강조했던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을 가슴에 새기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HD현대 주요 경영진은 매년 정주영 창업자의 묘소가 있는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올해도 3월 15일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창업자의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



HD현대가 펼치는 무탄소 시대

HD현대가 차별화된 기술력과 전략적 협약 등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빌게이츠와 SMR 개발 협력

HD현대중공업이 3월 12일(수)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원광식 HD현대중공업 해양에너지사업본부장,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와 크리스 르베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나트륨 원자로는 테라파워에서 개발한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Sodium-Cooled Fast Reactor)로, 고속 중성자를 핵분열시켜 발생한 열을 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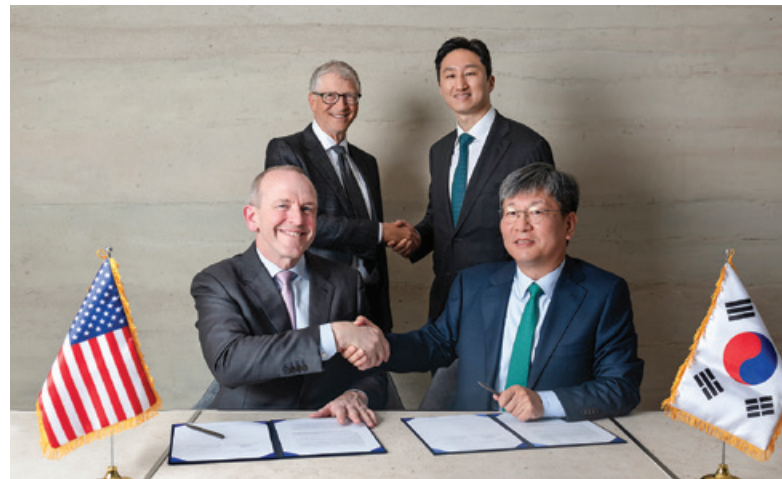
美 '해양 원자력 서밋'서 최초 공개

HD한국조선해양은 2월 12일(수) 미국 휴스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텍사스 센터'에서 열린 휴스턴 해양 원자력 서밋(New Nuclear for Maritime Houston Summit)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체 나트륨(소듐)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한다. SMR 가운데 안전성과 기술의 완성도가 높으며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 용량이 40%가량 적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의 우수한 생산기술력과 테라파워의 첨단 SMR 기술을 결합해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선다.

HD현대에는 나트륨 원자로에 탑재되는 주기를 공급하기 위해 최적화된 제조 방안을 연구 및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트륨 원자로의 초기 실증 프로젝트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에 필요한 제조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모델을 최초 공개했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선급(ABS)으로부터 SMR 기술을 적용한 1만 5천TEU급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획득한 바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공개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모델은 실제 기자재와 안전설계 개념까지 반영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원자력 추진선은 기존 선박과 달리 엔진의 배기기관이나 연료탱크 등의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다. HD한국조선해양은 큰 부피를 차지하던 기존 기관실 기자재 공간에 컨테이너를 추가 적재할 수 있도록 해 경제성을 높이고, 스테인리스강과 경수(원자로에서 냉각재 및 중성자 감속재로 사용되는 물)를 사용한 이중탱크 방식의 해양 방사선 차폐 시스템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기술 기업 베이커 휴즈(Baker Hughes)와 공동으로 개발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기반 추진 시스템도 적용해 기존 증기 기반 추진 시스템 대비 열효율을 약 5% 개선했다.

HD현대중공업이 최적의 대안

미국이 '미 조선업 부활'을 선언했다. 월등한 건조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한 HD현대중공업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열리는 미국 시장과 준비된 건조 역량

중국과 해상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국 군함 시장이 열리고 있다. 최근 미 해군은 296척의 함정을 2054년까지 381척으로 늘리기 위해 군함 발주량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선 매년 평균 12척씩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과거 400여 개에 달했던 조선소



기술력·가격·건조 기간, 대안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기술력·가격·건조 기간 모두 만족하는 이상적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미국과 동일한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HD현대중공업은 이지스 구축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하는 국내 유일의 조선사다. 한국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 구축함 중 5척의 건조를 담당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장 합리적 가격에 건조하고 있다. 건조

가 20여 개로 줄어 군함 생산력에 큰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 해전에서는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한 구축함·호위함 등이 많이 필요한데, 미국 내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들은 해군이 요구하는 연간 신조 건수(3척)에 못 미치는 연 1.6~1.8척만 건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현실적 방안은 동맹국에 이지스 구축함·호위함 등의 건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역시 미국 현지 건조의 3분의 2 수준으로 짧으며 건조 능력 역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특수선사업부가 보유한 구축함 전용 도크만 하더라도 미 해군의 일레이버크급 구축함(9천 800톤)에 해당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매년 1척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건조 능력을 갖추고, 향후 상황에 따라 한 해 5척까지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해외 수출 실적 역시 HD현대중공업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HD현대중공업은 1987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시작으로 36년간 18척의 함정을 수출했다.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2척, 방글라데시 경

비함 1척, 필리핀 호위함 2척·초계함 2척·경비함 6척, 페루 경비함 1척·호위함 1척·상륙함 2척 등으로 각 국가별 니즈에 맞는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특히, 페루는 페루 국영 시마(SIMA) 조선소와 협력해 현지 군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계약 옵션도 갖추고 있다. (페루 시마 조선소 관련 기사 20~21p) 최신식 이지스 구축함 기술력부터 오랜 시간 축적한 수상함 건조 실적까지, 미국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의 HD현대중공업 활약이 기대된다.

'Jump-Up 워크숍'과 'HD해피워크'

HD현대미포의 50주년 기념 워크숍과 HD현대중공업의 HD해피워크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울산 시민과 함께한 HD해피워크

HD현대중공업이 지난 3월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울산 시민과 임직원을 위해 문화 행사 HD해피워크를 HD아트센터에서 진행했다. 행사 동안 HD아트센터 영화관에서는 '침범', '미키17', '노보 케인' 등 인기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몰린 '백설공주', '미키17' 등의 작품은 연



일 만석을 기록했다. HD아트센터 미술관에서 열린 'My Dear 피노키오展' 역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행사 마지막 날에는 HD아트센터 로비에서 플리마켓을 진행해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의류, 수제 공예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다채로운 부스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HD아트센터 커피숍 '아마데우스'에서 울산 HD FC 선수들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창사 50주년 맞아 JUMP-UP 워크숍 실시

HD현대미포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2월부터 9월까지 34차수에 걸쳐 생산기술직 1천 600여 명과 설계/사무기술직 1천 300여 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점프-업(JUMP-UP)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50년을 향한 힘찬 항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 중인 교육은 지난 50년의 회사 발전을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한 전환에 맞춰 조직 및 개인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은 물론, 세대/국적/인종 등을 포용하는 존중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초대형 장비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초대형 장비 판매에 성공하며 글로벌 광산 장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HD현대건설기계, UAE 및 에콰도르에 초대형 굴착기 첫 공급

HD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주요 광물자원 보유국인 UAE에서 80톤급 초대형 굴착기를 최초로 판매하며 UAE 광산 장비 시장에 진입했다. UAE 두바이 지사를 거점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요를 신속히 파악해 고객 맞춤형 장비·서비스 패키지를 제안하고, 두바이 물류센터를 통한 신

속한 부품 공급 능력을 앞세워 이끌어낸 성과다. 에콰도르에서도 85톤급 초대형 굴착기 'R850LC-9'와 대형 휠로더 'HL780-9' 장비를 처음 공급하는 인도식을 열었다. 고객사는 현재 운영 중인 금 광산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HD현대건설기계의 초대형 장비를 구입했다. 에콰도르는 HD현대건설기계가 중형 굴착기 시장에서 점유율 14%를 기록할 만큼 현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번 판매를 통해 초대형 장비 판매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인프라코어, 100톤급 굴착기 및 철거용 장비 판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에 디벨론 100톤급 굴착기 판매를 성사시켰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매장량과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니켈을 포함해 주석, 코발트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지고 있어 채굴용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제주도에 최초로 철거 전용 굴착기를 공급하는 쾌거도 이뤘다. 68톤급 디벨론 'DX550LC-7 하이리치 데몰리션(High Reach Demolition)'은 2019년 HD현대인프라코어가 국내 최초로 출시해 현재 국내 철거용 특수장비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9층 높이인 28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 5개의 프론트 옵션을 갖춰 붕괴 암을 용도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높다. 최근 철거 현장에서 안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 美 해군사관학교 방문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지난 3월 7일(금) 세계 최강 해군의 요람인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이벳 M. 데이비스 교장(해군 중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만난 후 미 해군사관학교의 선체 구조 강의 현장과 유체역학 연구실을 방문해 교수진 및 생도들과 미래 해양 분야의 발전 방향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생도들과의 환담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조선·해양 분야 혁신의 원동력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현대는 지난 2024년 7월 미국 미시간대학교, 서울대학교와 조선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 MOU를 맺은 후 공동연구 및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등 미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삼호

회사의 얼굴, 홍보관 새단장

HD현대삼호가 지난 2월, 새롭게 단장한 홍보관을 오픈했다. 약 6개월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친 홍보관은 지원관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영상을 통해 홍보물을 직관적으로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회사의 역사를 파노라마 방식으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지나면, 야드와 주력 건조 선박을 모형 및 3D 도면을 통해 입체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에 입장할 수 있다. 반대편에는 회사와 협력 중인 주요 선주 고객사의 이름과 로고, 거래 정보 등을 검색해볼 수 있다. 미래의 HD현대삼호를 배경으로 가상 사진을 찍어 간직할 수 있는 ‘AI 포토존’도 조성해, 홍보관을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선물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리모델링된 홍보관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회사를 알리는 역할은 물론, 선박 명명식 식전행사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글로벌 첫 공개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신규 개발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를 공개했다. 지난 4월 3일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현대 HX400과 디벨론 DX240을 론칭한 데 이어 4월 7일 독일 바우마 전시회에서 현대 HX360, HX400과 디벨론 DX230, DX260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한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는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해 개발한 첫 번째 제품으로, 기존 유압 제어 방식에서 진보한 ‘전자제어유압시스템(Full



Electro-Hydraulic system, FEH)’을 도입해 스마트 기능을 강화했다. 작업 효율 및 품질을 높이는 스마트 어시스트(Smart Assist), 작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는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장비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니터링(Smart Monitoring) 기능을 대거 탑재해 다양한 환경에서 맞춤형 설정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HD현대오일뱅크

최신 규격에 맞춘 휘발유 엔진오일 출시

HD현대오일뱅크가 자동차용 윤활유의 최신 규격(API SQ, ILSAC GF-7)에 맞춘 휘발유 차량용 엔진오일 ‘현대 엑스티어’ 신제품 16종을 출시했다. API와 ILSAC은 자동차용 윤활유의 국제 규격을 정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 피스톤 청정성, 연료 이상연소 방지, 연비 향상, 배출가스 저감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API SQ’ 및 ‘ILSAC GF-7’ 규격을 발표했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는 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1년 여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신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에 새롭게 투입된 마찰 조정제는 엔진 내 마찰을 감소시켜 연비를 높이고, 엔진의 고무 실(Seal) 보호제가 엔진오일 누유를 예방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에도 확대 적용될 배기가스 규제까지 선제적으로 고려해 신제품을 개발한 만큼 해외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HD현대마린솔루션

‘웨더뉴스’와 선박 운항 최적화 맞손

HD현대마린솔루션이 2025년 1월, 글로벌 1위 기상 정보 기업 웨더뉴스와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웨더뉴스는 1986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민간 기상 정보 회사로, 해양, 항공, 육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웨더뉴스는 HD현대마린솔루션에 정교한 기상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HD현대마린솔루션은 웨더뉴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운시장 및 선박 기술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BNEF에서 글로벌 1티어 선정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선정한 2025년 1분기 ‘Tier-1 PV Module Manufacturers’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BNEF의 Tier-1 등재는 모듈 품질, 공급 안정성, 금융기관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되는 것으로, 세계 태양광 산업에서 글로벌 탑 티어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적합한 모듈 브랜드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은 더욱 크다. 이번 선정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고효율·고신뢰성 제품 개발 노력과 국내 제조 기반의 품질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향후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만의 자동용접 시스템

HD현대가 기존 용접 시스템과 차별화된 조선 용접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했다.

차별화된 용접 시스템 구축

HD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과 HD현대삼호는 협동로봇 기반의 격자부 자동용접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10월부터 HD현대삼호 판넬조립부에 적용하고 있다. 이 장비는 HD한국조선해양의 자체 로봇 플랫폼을 적용해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용접 품질을 제공한다.

HD현대삼호 판넬조립부에서는 2000년대에 일본 히타치社 로봇 기반의 격자부 자동용접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도입 후 20여 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현재는 더 이상 생산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 개선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D현대삼호와 HD한국조선해양은 국내 협동로봇 제조 회사인 뉴로메카社의 협동로봇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조선 용접용 로봇 플랫폼을 운용 소프트웨어로 채택하여 격자부 자동용접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히타치社 로봇보다 작업자의 편의성과 사용성이 대폭 개선됐으며, 생산성에 직결되는 작업 속도, 자동용접 대응 범위, 용접 품질,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용접용 로봇 플랫폼은 선박 블록 생산 공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작업 시나리오를 고려해 기존의 용접 시스템과 차별화된 HD현대만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다. 그룹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 및 제어 기능을 플랫폼화한 것이 특징이다.



범용성, 경제성, 효율성 모두 잡다!

조선 용접용 로봇 플랫폼은 용접 자동화를 위한 핵심 기능 대부분을 플랫폼 내에서 구현함으로써 특정 로봇 브랜드에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공통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각 작업 현장 조건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인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 모델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로봇 도입 시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확장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조선 용접용 로봇 플랫폼에서는 진보된 인터페이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작업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로봇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 조선소와 24시간 무인 자율 운영 조선소 구축을 목표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는 등의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로봇 시스템은 숙련 작업자 감소 문제 해결 등 생산 자동화 및 스마트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격자부 자동용접 시스템

영하 20도에서 성능 입증한 수소엔진

HD현대인프라코어가 수소엔진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고강도로 검증하는 혹한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극한의 환경에서 안정성 검증

HD현대인프라코어는 지난 2월 4일(화)부터 14일(금)까지 강원도 대관령에서 타타대우모빌리티와 협력해 11리터급 수소엔진 HX12에 대한 혹한지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번 테스트는 수소엔진 차량이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즉각 시동 가능 여부, 수소탱크 내 안정적인 연료공급, 화물 적재 조건에서의 경사로 운전성 및 제동성, 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타타대우모빌리티와 수소엔진 차량의 운전성과 가속성 등을 개선하고, 배출가스와 연비 측정을 위한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어 ▲혹서기 주행 ▲경사로 등판 능력 측정 ▲55°C 고온 챔버(실험실 환경) 테스트 ▲10만km 주행 내구성 검사 등 수소엔진 차량 양산 준비를 위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수소엔진 HX12 H2 MEET 2024 전시 모습

2026년 트럭용 수소엔진 첫 양산 목표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26년 초 트럭용 수소엔진을 양산해 타타대우모빌리티에 공급하며, 이후 상품화 단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수소엔진 트럭을 출시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엔진을 장착한 버스, 트럭 등의 상용차가 본격적으로 출시된 사례는 아직 없다. HD현대인프라코어의 수소엔진은 상용차용 CNG(압축천연가스)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해 기존 차량에 탑재하기 수월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고순도 수소를 요구하는 타 동력원에 비해 경제적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열린 수소산업 전시회 'H2 MEET 2024'에서 '베스트 프로젝트 미디어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 정욱 엔진제품개발부장은 "이번 혹한지 테스트는 수소엔진기술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 당사 수소엔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혹한지 테스트 중인 'HX12'



HD현대삼호 멤브레인공사부 LQC(Line Quality Control)팀

FOR

PERFECT QUALITY

LNG운반선의 화물창의 완벽한 품질을 책임진다

명실상부 현시대 대한민국 조선업을 먹여 살리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정점인 LNG운반선.

그 핵심 중의 핵심, LNG 탱크의 품질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여념 없는 이들이 있다.

미세한 결함마저 매의 눈으로 잡아내는 HD현대삼호 매출의

일등 공신, LQC팀을 만나봤다.

시작에서 완성까지 전 과정 참여

박주영 팀장 포함 27명으로 구성된 LQC팀은 LNG 탱크가 탄생하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공정 검사를 담당한다. 팀원들의 업무는 4개 과로 나뉘는데, 각자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해 공정 지연 없이 선박 배치를 이뤄내고 있다.

1과의 주요 업무는 선행공정 관리다. 공간검사라고도 불리며, LNG 화물창 제작 전 선박의 건조, 도장 등 선행공정이 스케줄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여기에 LNG 화물창의 뼈대인 판넬을 설치하는 보온 작업까지 담당하고 있다. 2과는 LNG 화물창의 2차 방벽 제작 과정을 책임진다. 탱크 내부에 결함이 발생해 액화된 LNG가 1차 방

벽을 뚫고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설치하는 2차 방벽의 품질을 관리한다. 3과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멤브레인 시트를 설치 및 용접해 만드는 1차 방벽 담당이다. 이 밖에도 화물창 데미지 검사 및 내부 펌프 타워 탑재 등도 살피고 있다.

마지막으로 DF과는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연료탱크를 맡는다. LNG는 물론이고 에탄올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추진 방식의 탱크 제작 공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성실함과 깐깐함이 만든 완벽한 품질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 규제, 이를 준수하기에 알맞은 친환경 연료 LNG. 그만큼 다루기 까다롭기에 이를 운반하거나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일반 선박보다 두 배 이상 가격이 나가기기도 한다.

LNG는 영하 163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극저온 상태의 LNG를 장시간 저장하고 버텨낼 수 있는 재질의 탱크를 하자 없이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품질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LNG운반선 한 척에는 총 4개의 화물창이 들어가는데, LQC팀은 호선마다 1인 1탱크를 원칙으로 담당자를 배치해 정확한 스펙과 품질 규정에 맞게 작업 과정과 장비 사용을 진행하는 지 등을 살피고 있다.

쏟아지는 LNG선 물량과 짧아지는 호선 배치 간격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호선 검사와 선주 미팅 일정이 빽빽이 잡혀 있다.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힘도 들지만, 최종 선주 검사에서



TPX Bubble 확인 작업



멤브레인 시트 용접 비주얼 검사

코멘트 없이 무사히 승인을 받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듯하다. 박주영 팀장은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직접 가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내 철칙”이라며 “미세한 오차라도 방치할 경우 막대한 품질 실패 비용으로 돌아오는 것이 LNG 선박인 만큼,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숨기지 말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전한 기술 이전 희망

조선산업은 화석 연료 시대에서 친환경 연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상용화되면서, LPG, LNG와 메탄올을 넘어 현재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엔진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 목표인 수소 연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활용할 젊은 인재가 부재하다면 온전한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 다행히 LQC팀에는 재작년 말 대졸 생산직 전형으로 입사한 김재홍 사원이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체계적인 품질 요원 수업을 받고 있다.

김재홍 사원은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미숙하지만, 팀장님을 포함한 선배님들의 지도로 차근차근 배워 나가고 있다”면서 “LNG선의 핵심 설비를 담당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품질 요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영 팀장은 “선배들이

쌓아올린 기술과 노하우가 끊기지 않도록 젊은 인재들이 현장에 많이 들어왔으면 한다”면서 “2003년 첫 LNG선을 배우러 울산에 파견 갔던 젊은 날의 열정과 패기를 되새기며, 후배의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LQC팀의 성과

4

4개 과가 유기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공정 지연 없이 계획된 대로 진행

1

1인 1탱크, 담당자를 배치해 정확한 스펙과 품질 규정에 맞게 작업

27

27명이 매의 눈으로 미세한 결함까지 잡아냄

태평양을 마주한 도전의 현장 페루 시마 조선소로 가다!

In Peru Sima Dockyard



페루의 첫 현대식 함정이 건조되는 시마 조선소.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페루 지사의 기술력,

그리고 시마 조선소 근로자들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14시간 시차를 넘는 협업

페루 지사의 하루는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5명으로 구성된 페루 지사는 2024년 5월 페루로 건너와 페루 해군의 함정 3종(호위함 1척, 원해경비함 1척, 상륙정 2척)의 현지 건조 공동 생산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함정 건조 지원은 물론 기술 이전, 설계 협업, 프로젝트 조율, 선주와 소통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선주의 요청을 듣고 본사에 전달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다. 업무 대부분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협업을 통해 이뤄지며, 14시간의 시차는 서로의 배려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현지의 주간 업무가 끝나면, 서둘러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다. 저녁 6시가 넘어가면 한국 본사에서 오전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4시간 동안 근무 중 있었던 사안에 대한 정보를 각 담당자에게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선주와의 화상 회

의를 통해 주요 안전들을 점검한다.

지난해, 본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페루 호위함의 핵심 장비인 레이더 성능 업그레이드 계약을 추가로 성사시키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남미 국가에 최초로 도입되는 첨단 장비로, 페루 지사 직원들은 페루의 해양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HD현대중공업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각 함정에 맞게 적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낮선 땅에서 하나의 팀으로

페루 시마 프로젝트가 의미 있는 이유는 기술 이전과 협업을 통해 페루 조선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 해군의 신형 함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설계 도면과 핵심 장비를 제공하고, 시마 조선소가 직접 함정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시마 조선소의 직능별 주요 담당자 12명이 한국을 방문해 HD현대중공업의 최신 기술을 익혔으며, 이후 HD현대중공업에서는 선체 내업 전문가인 박성환 기장과 이도겸 기사를 페루로 파견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페루 근로자들과 함께 실전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페루 시마 조선소 마리오 알로로 부사장은 “처음에는 한국식 작업 방식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는 더 큰 배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Industrial day(현지업체 초청 로드쇼)

확신한다”고 전했다. 페루의 조선 기술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뢰가 없는 기술 협력만으로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한 HD현대중공업 페루 지사 직원들의 노력이 분주하다. 이들은 퇴근 후에도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며 페루 현지인들과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설계팀과 협업이 중요한 만큼 직원들을 매주 초대해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그리움을 열정으로

해의 근무에는 어려움도 따른다. 시차, 음식, 날씨 등 낯선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다. 페루 지사 긍정의 아이콘 김재유 책임매니저 역시 “화면 너머로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직접 안아주지 못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그리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이들을 지탱한다.

도전은 어렵지만, 그만큼 값진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늘도 페루 지사의 직원들은 시마 조선소에서 HD현대중공업의 기술을 공유하고, 선주와 협력하며, 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들의 열정이 페루 바다 위 위엄 있는 함정으로 탄생할 순간을 기대한다.



MASTERS OF EXCAVATOR

HD현대사이트솔루션 월/대형굴착기개발팀, 중형굴착기개발팀



글로벌 톱티어를 향해

굴착기 개발 기획부터 출시까지

성공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

Q.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 통합제품개발부문 소속으로 굴착기 개발 기획부터 출시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어요. 새로운 모델의 콘셉트와 사양을 정의하고, 개발·생산·영업·구매·품질 등 여러 부서와 협

업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최고의 굴착기를 만들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굴착기 개발 과정이 궁금합니다.

굴착기 포함 건설기계는 NPD(New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게이트(Gate) 0'부터 '게이트 6'까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에서는 사업 및 제품 전략을 고려해 플랫폼 콘셉트를 수립하며, 다음으로 시장 환경과 VOC(Voice of the Customer)를 기반



현대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HX400



도벨론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DX230

으로 상품 콘셉트를 기획합니다. 이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제품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를 진행하며 제품과 부품의 신뢰성 검증 계획을 세웁니다. 프로토타입 장비에 대해 신뢰성 검증을 완료하면 파일럿 장비에 대한 생산과 출시를 준비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검증한 후 본격적으로 양산 및 출시를 추진합니다. 출시 이후 시장에 공급된 제품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검토 및 확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NPD가 종료됩니다. 각 게이트마다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만 다음 게이트로 넘어갈 수 있고, 매주 기술 개발 점검 회의와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통해 개발, 생산, 영업, 구매, 품질 등 다양한 부서와 체계적으로 협력하며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요.

Q. 최근 뜻깊은 성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래 건설기계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 개발을 완료해 4월 서울모빌리티쇼와 독일 바우마에서 처음 공개했어요. 2022년부터 HD현대 건설기계 3사가 협력해 탄생한 제품으로, '전자제어유압 시스템(Full Electro-Hydraulic system, FEH)'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표한 작업의 깊이와 기울기에 대해 실시간으로 작업 가이드를 제공하는 머신 가이드스(Machine Guidance, MG)와 장비의 위치 및 동작 제어를 통해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반복 작업을

줄이는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MC) 기술을 적용했어요. 과 굴착 방지나 작업 범위 지정을 통한 충돌 방지, 브레이커 자동 제어 기능 등을 탑재해 정교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을 지키고 장비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했으며, 고강도 검증으로 신뢰성을 높이고 자체 개발한 차세대 엔진을 탑재해 출력과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캐빈 내부 또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큰 도약을 이뤘습니다.

현재는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 23톤, 25톤, 35톤, 38톤 모델 외에 30톤 굴착기 신모델을 추가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이 밖에 특수장비 라인업으로 지난 2024년과 올 4월 신규 로그로더를 출시했고, 작년 10월에는 머트리얼핸들러를 개발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Q. 성장하는 조직을 위한 팀만의 그라운드룰을 적용한다고요.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살피며, 더욱 높은 수준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그라운드룰을 만들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굴착기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며,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만의 [그라운드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자

-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팀원들이 협업하는 만큼 열린 자세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으로!

-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소통하고, 논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후 공유하며 목표 달성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시장에 답이 있다

- 최신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기획의 본질에 집중하자

- 시장에 더욱 가치 있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기획이 왜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고민합니다.

BRAIN OF SHIP

배의 몸통을 만드는 조선소가 있다면, 두뇌와 신경을 설계하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HD현대마린솔루션 글로벌디지털센터(GDC).
이곳에선 선박 스마트십 솔루션(ISS), 통합 제어 시스템, 선박 사이버보안 등
조선산업 디지털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선박 디지털화의 산실

2021년 1월, 울산테크노산단에 문을 연 글로벌디지털센터는 HD현대마린솔루션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약 1천 500평 규모에 사무동·품질검사동·물류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원과 엔지니어 등 약 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곳에서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 품질 관리, 물류 관리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무동 문을 열면 거대한 스크린과 미래형 브릿지 콘솔 장비가 눈에 띈다. 디지털 화면에서는 선박 이동 경로, 해상의 날씨 변화, 항로 최적화 정보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는 HD현대마린솔루션이 개발한 스마트십 솔루션(ISS)으로 가능한데, ISS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하며, 운항 경로 최적화와 선박 유지·보수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540척의 선박이 ISS를 탑재하고 있으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육상에서의 관제 서비스와 원격 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디지털 콘솔 장비는 선박통합항해시스템(INS)이다. 조선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지만 선박통합항해시스템은 대부분 일본 장비에 의존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HD현대마린솔루션은 국책 과제의 주관사로 참여하며, 독자적 통합항해시스템 개발에 힘썼다. 마침내 자율 운항 시스템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INS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품질검사동(공장동)에서는 사무동의 협업 스타일과는 또 다른 활기를 느낄 수 있다. GDC에서 설계된 기술 장비들을 최종 검증하는 공간으



새로운 장비로 업무 진행하는 직원들



장비를 체크하고 있는 엔지니어들

로, 엔지니어들이 각 부품과 장비의 세세한 성능을 확인하며 작은 오류까지도 기록하고 수정한다. 공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지상 성능검사(Factory Acceptance Test)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기자재가 계약 시 정의된 기술 요건에 적합한지 고객과 함께 출하 전 최종 기능을 시험한다. 품질검사동에서는 LNG 추진 선박에 탑재되는 HiCONiS 통합제어 시스템이 심층 점검을 거친 후 실제 선박에 탑재될 준비를 하고 있다.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디지털 솔루션

글로벌디지털센터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다. 선박 기술 전반에 걸친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품질 보증, 조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유기적 혁신의 장이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협력의 시너지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진다.

디지털솔루션부문 박후식 상무는 “이곳에서 개발되는 기술과 제품은 단순히 선박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고, 조선업의 새로운 디지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이라며 GDC의 존재 가치를 강조했다. 조선산업의 미래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선박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사이버 보안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글로벌디지털센터. 오늘도 미래를 위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일과 학업, 그리고 최선의 시간들

시간 관리로 균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이무원 기사(소재생산부)
기계전기산업공학과 수석 졸업

1. HD현대마이스터대학 진학 계기는?

울산에서 나고 자란 저는 어릴 적 대왕암공원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을 보며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고교 졸업 후 바로 HD현대중공업 입사에 성공했지만 학업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발전하려면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HD현대마이스터대학에 지원했습니다.

2. 일과 학업의 병행,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면 일과 학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루 일과 및 업무를 리스트로 정리하고, 중요도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책정해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과 학업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고, 학점도 '4.5' 만점으로 수석 졸업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어요.

3. 학업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시험 기간, 친구와 함께 스터디카페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 쉬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상쾌한 바람과 별빛 가득한 밤하늘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친구가 장난처럼 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잠시나마 시험의 부담을 잊었습니다.

4. 학업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시야의 확장입니다. 이전에는 말은 업무에 집중하는 데 그쳤지만, 학교에서 전문 지식과 생산관리 등을 배우며 관리자 관점에서 업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5.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꾸준히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힘든 만큼 배우고, 배운 만큼 성장했습니다.

HD현대미포 이승진 기사(선체조립부)
조선해양과 수석 졸업

1. HD현대마이스터대학 진학 계기는?

울산 동구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소에 꿈이 생겼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살의 나이로 입사했습니다. 주변 동료, 친구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많은 우려를 표했어. 하지만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늘 발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입학 결심을 했습니다.

2. 일과 학업의 병행,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는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접에 대한 이론을 익히고 조선업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가는 등 배움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3. 학업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지난 2023년 입학해 2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그중에서도 최종 학점 4.44(4.5점 만점)로 과 수석 졸업장을 받으며 학사모를 쓸 수 있었던 순간이 오랜 시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4. 학업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도전을 통한 성장입니다. 인생은 가까워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힘든 순간이 많아도 지나고 보니 소중한 경험이자 즐거운 시간이더군요.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배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5.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고생하신 교수님들은 물론, 많은 배려를 해준 팀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늘 격려를 해준 가족 덕분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턴사원 프로젝트 후 정규직으로 선발된 신입사원의 각오

HD현대는 다양한 인턴사원 프로그램으로
우수 인재를 조기 확보하고 있다.
인턴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정식으로 HD현대의 일원이 된
신입사원들의 각오를 들어봤다.



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 김종인 매니저(사업기획부)

저는 2023년 3월,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입사해 HR지원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정식 입사후 사업기획부로 배치 됐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주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 분석과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요. 처음엔 낯선 기술 용어와 업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모하며 공부하고, 사내외 교육 과정을 활용하며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은 젊고 활기찬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팀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배울 수 있어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 자리에서 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후배가 들어왔을때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선배로 성장하고 싶어요.

협업을 바탕으로 DT 전문가로 거듭나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김한준 매니저(DT컨설팅팀)

저는 약 2개월의 인턴 활동을 거쳐 작년 1월부터 정식 매니저로 합류했어요. 지금은 그룹 표준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가이드 수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팀원들을 만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많이 부족했지만, 팀원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고 피드백을 아낌없이 주신 덕분에 업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큰 힘을 얻었어요. 덕분에 일 하는게 즐겁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DT혁신실, 저희팀 그리고 특히 정민수 매니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에서 근무하여 가장 좋은 점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 협업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예요. 저는 이런 기회를 살려 비즈니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IT기술과 업무 프로세스를 잘 융합해 최적의 DT전략을 만들어가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차세대 안전관리자가 되겠습니다!

HD현대중공업 김승환 매니저(안전경영부 SRM추진과)

저는 도로교통개선, 통합안전관제솔루션(HiCAMS) 고도화, 세이프티 오픈마켓(SOM, Safety Open Market) 운영,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인턴과 신입사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으로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신입사원이 되고 나서는 제 업무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생겼어요. 제 목표는 차세대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 직무 선배님들의 활약상을 보며 저도 빠르게 성장해 회사에 기여하고 싶고, 미래형 조선소(FoS, Future of Shipyard) 추진에 따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첨단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HR·총무를 아우르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겠습니다!

HD현대삼호 김승현 매니저(총무부)

2023년 9월 HD현대삼호에 인턴으로 입사해 지난해 1월 정식 입사 후 어느덧 2년차가 되었네요.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HR부에서 포상 업무를 담당했고, 최근에는 총무부로 부서를 옮겨 산업보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입사한 지 이제 갓 1년이 넘는 신참이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HR부와 총무부 두 부서에 몸담으면서 남들보다 다양한 업무를 접하게 된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게 업무 경험을 폭넓게 쌓아 HR·총무를 아우를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로 거듭날 계획이에요. 그리고 타지에서 내려온 저를 항상 챙겨주시는 직책과장님을 비롯한 선임들께도 늘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외국인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HD현대미포 황선희 매니저(동반성장부)

안녕하세요. 저는 HD현대미포 글로벌인력지원과에서 3개월간 인턴 활동을 거쳐, 2024년 7월 동반성장부에 입사한 황선희 매니저입니다.

인턴 시절에는 외국인 문화행사와 한국어 교육 지원 업무에 주로 참여했고,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 교육 계획 수립, 문화행사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던 경험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감사 인사를 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소통 능력과 업무 역량을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통과 실력을 겸비한 리더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성장도 지켜봐 주세요!

조선업의 현실과 방향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는 조선업.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글 _ 산업연구원 이은창 연구위원

조선업 현실 = 불안한 호황

오랜 불황을 겪은 조선업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 2024년에는 초호황기 수준의 물량이 발주됐으며, 수주 잔량은 4년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고 해운산업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으로 장기 전망도 좋다. 게다가 한미 조선 협력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조선업에 대한 기대와 긍정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정말 우리 조선업에 탄탄한 미래만 있을까? 주요 선진국은 조선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곳은 미국을 제외하면 없다. 호황이라는 데 중소조선이나 기자재업체는 어렵다는 곳이 더 많다. 밝아 보이는 미래에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경쟁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과 조선업의 근본적 위험인 높은 시장 변동성 때문이다. 발주 척수가 많은 선종은 꾸준한 물량이 발주되므로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고부가 가치 선박은 척수가 적으니 변동성이 크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중국과의 경쟁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LNG운반선을 대량 수주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큰 위험도 공존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 시장 변동이 작은 선종은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고 변동성이 큰 선종만 유지하기에는 우리 조선업 규모가 너무 크다. 범용선박을 건조하는 중소조선소는 중국과 경쟁하기 쉽지 않고, 건조 척수가 줄어들면 기자재 생태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선 협력 기대감은 높지만...

한미 조선 협력의 기대감도 마찬가지다. 미국과의 특수선(MRO, 신조), 미국 전략 상선 확충 및 에너지 개발 관련 선박과 해양플랜트, 미국의 중국 해운사·중국 선박보유 해운사에 대한 제재에 따른 대체 발주 선박,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기술 협력 및 인력 양성과 같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많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많지 않다.

오히려 올해 1, 2월은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발주가 크게 줄었다. 갑자기 한미 조선 협력으로 대량의 물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미리 투자를 늘렸다가는 물량이 예상보다 적어 문제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해운사나 유럽, 중국의 반발로 미국의 노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 조선업의 진정한 현실은 불안한 호황이다.

조선업의 미래를 준비하자

트럼프 1기 미국의 중국 제재로 반도체나 이차전지 산업에서 중국의 시장 장악력을 잠시 약화시켰던 것처럼, 조선업에서도 미국의 중국 견제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약간의 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황의 큰 변동성과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산업의 본질적인 위험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선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 우리 조선 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의 시황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시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보적 기술력은 필수다. 친환경 디지털 선박은 이미 중국과 무한 경쟁 중인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나 친환경 원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조선업이 차별성을 가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정보 탈취뿐 아니라 GTT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기술력에 더해 유연한 생산 시스템도 중요하다. 유연한 생산 시스템은 스

마트아드 구축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과 같은 전략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중국에 비해 원청·협력사간, 노사간 이해와 협력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우리가 불리한 면이 있다.

둘째, 조선업은 국가적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사는 공적 성격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프랑스 아틀란틱조선, 스페인 나반티아 외에도 싱가포르 시트리움, 중국 CSSC 등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하고 조선업에서 유명한 기업은 대부분 국영조선소다. 본질적인 위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영조선소는 비효율적이어서 경쟁력은 부족하다. 중국은 특유의 구조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었는데, CSSC는 2023년 매출의 23%가 방위산업으로 내수 상선까지 생각하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조선업은 해외고객 중심으로 개별 기업의 역량에 집중하느라 공공부분에 관심이 떨어진다. 철강, 해운 등 전후방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회나 지원기관이 약하다 보니 조선업을 대변하고 공공의 관심을 끌어낼 기반이 부족하다. 공공 기반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트럼프 2기로 발생하는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원천기술 개발과 원청·협력사간, 노사간 협력을 통한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진출로 우방국 시장을 주도하고, 공공부분의 투자를 통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의 국가적 인식 개선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선박 가격 결정법, 선박이 폭풍우를 건다는 방법 등 선박의 모든 것

거대한 바다를 누비는 선박. 그 뒤편 수많은 고민과 기술이 숨어있다.
치밀한 설계, 정교한 생산 공정, 그리고 철저한 시운전까지
HD현대 조선사업 부문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1. 선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선박 한 척에 얼마예요?”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설계도와 사양에 따라 달라요!”가 정답이다. 선박 가격은 크기, 용도, 엔진 종류, 건조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같은 크기의 선박이라도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등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설비와 기술이 달라 가격도 차이가 난다.

강철, 알루미늄, 전자 장비 등 자재비와 인건비, 환율 변동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박 가격의 1/10을 차지하는 엔진은 선박의 '심장' 역할을 하는 만큼 연비, 속도, 친환경성을 고려한 최신 사양일수록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영업팀은 고객이 원하는 사양에 맞춰 견적을 세밀하게 산출하고,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 한마디로, 선박 가격은 '맞춤형 가격'인 셈이다.

2. 선박이 폭풍우를 건다는 이유는?

파도 높이 10m, 바람 속도 시속 100km! 이런 폭풍우에도 배가 안 뒤집힌다고? HD현대중공업의 선박은 강력한 폭풍우에도 끄떡없다. 비밀은 바로 '선체 설계'와 '재료 선택'에 있다. 먼저, 선체는 U자형, V자형 등 파도를 가르는 최적의 모양으로 설계된다. 덕분에 파도의 저항을 줄이고,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무게 중심을 아래쪽에 두어 전복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선박 외벽은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져 파도의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다. 일부 선박에는 이중 선체 구조를 적용해 혹시 모를 손상에도 안전하게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항해 시스템까지 더해,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항로를 찾아 폭풍우를 피하기도 한다. 이렇게 꼼꼼한 설계와 기술력 덕분에 선박은 거친 바다에서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다.

3. 선박 한 척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릴까?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선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착공(Steel Cutting) 기준으로 평균 10개월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선박 건조는 블록 조립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마치 레고 블록처럼 선박의 주요 부분을 모듈별로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방식이다. 먼저, 선체, 엔진룸, 화물창 등 선박의 주요 부분을 각각 따로 제작한다. 동시에 각 부분에 배관, 전기 설비도 설치해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 거대한 블록들을 초대형 굴리앗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면, 어느새 63빌딩 보다 큰 선박의 모습이 완성된다. 이후에는 용접, 방수 처리, 도장 등을 거쳐 선박이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운전을 통해 선박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4. 선박은 시속 몇 km로 달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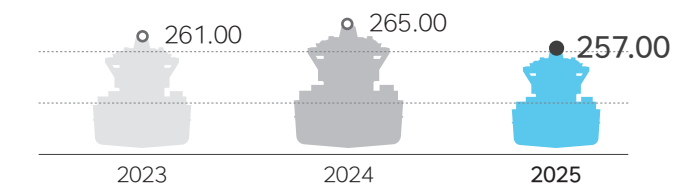
바다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대형 유조선은 평균 시속 28~37km(약 15~20노트)로, 컨테이너선은 최대 시속 50km(약 28노트)까지 운항할 수 있다. 속도는 선박의 크기, 무게, 엔진 출력, 그리고 항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운항에서는 연료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대부분의 상선이 최적 운항 속도(Eco Speed)로 운항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최대 속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또한, 악천후나 해류의 영향으로 속도가 변할 수 있으며, 특히 태풍이나 강한 조류가 있는 해역에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HD현대 조선3사는 시운전 부서를 두고 완성된 선박이 설계된 속도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있다. 속도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 조종 성능, 엔진 출력까지 철저히 점검한 후, 고객에게 완벽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호에서는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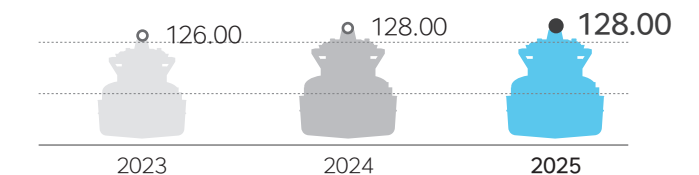
주요 선종 선가 (출처: 클락슨리서치)

(단위: 백만 달러), 최근 3개년 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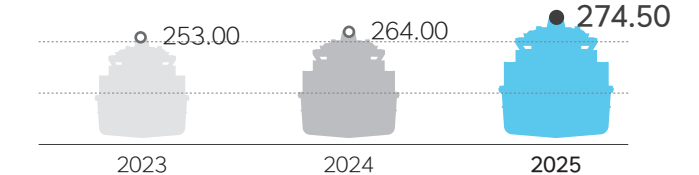
• 17만 4천 입방미터 급 LNG 운반선



• 31만 DWT(재화중량톤수)급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 2만 3천 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미래를 위한 꿈의 공간

어린이들의 꿈이 꺾이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지역 사회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지난 2월 15일(토) 드림 플레이스 개소식을 진행했다.

즐겁고 안전한 공간에서 피어나는 꿈

HD현대1%나눔재단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노후된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거주 시설을 개선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전국의 48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 환경을 보수하고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최대 16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여가 활동 조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HD현대의 기술 및 인적 자원과 연계해 시설의 유휴 공간을 어린이들의 인프라 공간(운동 시설, 놀이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드림플레이스 개소식

목포 경애원 '드림 플레이스' 개소

2024년도 사업 대상이었던 목포 경애원에서 지난 2월 15일(토) '퓨처 빌더(Future Builder)의 꿈이 시작되는 곳, 드림 플레이스(Dream Place)' 개소식을 진행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이곳에 데크, 테이블, 텐트 등을 설치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개소식에는 HD현대삼호 김재을 사장과 김원이 국회의원을 포함 HD현대1%나눔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경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드림 플레이스 사업을 담당하는 HD현대1%나눔재단 이주영 매니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에 HD현대1%나눔재단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착한 건설기계 훈장과 함께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온기는 또 다른 온기를 만든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이 현대 및 디벨론 건설기계로 선한 영향력을 전한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꼬마중기 유익종 대표(왼쪽)

건설기계로 희망을 전한 의인들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 및 철거 현장, 재해 수습 현장에서 미디어에 포착되기에 대중에게는 강인함과 동시에 다소 험난하고 무거운 이미지로 인식되기도 한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건설기계의 선한 가치 확산을 위해, 자사 브랜드인 현대와 디벨론 건설기계를 활용해서 지역 사회와 이웃들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희망을 준 의인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착한 건설기계 훈장 수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훈장 수여 대상자에게는 감사패 및 서비스 관련 특전이 제공되며, 정의로운 건설기계임을 나타내는 훈장 데칼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제주도 오창수 기사(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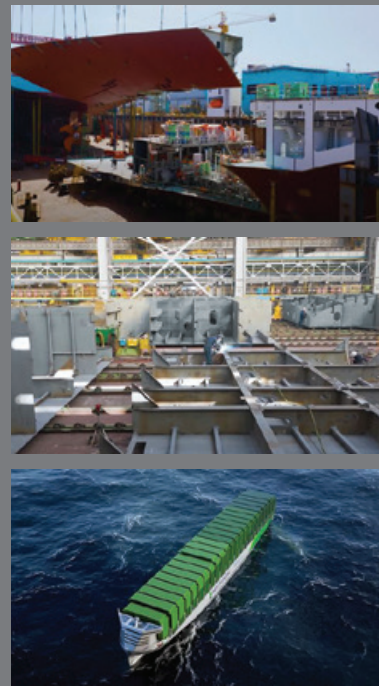


신인기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익산지회장

이웃을 도운 고마운 굴착기 이야기

지난 2월 착한 건설기계 훈장 대상자 3명이 선정됐다. 충북 제천에서 꼬마중기를 운영하는 유익종 대표는 수년간 아들과 함께 디벨론 건설기계를 활용해 봉사에 나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화재로 인한 창고 전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부부를 위해 굴착기로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제주도의 오창수 기사는 굴착기로 난폭 운전 사건을 해결해 언론과 SNS 등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차량 6대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을 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차를 따돌리고 다른 승용차 및 버스와 충돌하며 질주를 계속했다. 이때 오창수 기사가 나서 굴착기로 해당 차량의 퇴로를 차단해 추가 인명 피해를 막았다.

신인기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익산지회장은 현대 굴착기로 익산시 재해 현장 지원 작업을 상시로 수행하고, 지난 여름 기록적 폭우로 특히 피해가 컸던 익산시 수해 복구에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HD현대 건설기계 부문은 건설기계 훈장 수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며 건설기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할 계획이다.



최초의 질문과 친환경 조선

내일의 바다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 철학적 질문이 HD현대 유튜브 영상 '최초의 질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다. 7분 남짓한 다큐멘터리는
HD현대의 친환경 조선 기술 구현을 담아내고 있다.

기술력으로 친환경 조선업 선도

이번 영상은 HD현대가 펼쳐가는 조선 산업의 가치와 비전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요즘, 해양 산업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특히, 해양 생태계 보호와 탄소 배출 저감은 조선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HD현대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이끌며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최초의 질문'에서는 HD현대가 개발한 혁신적 친환경 선박 기술에 집중한다. 지난해 1월 머스크 사에 인도된 1만 6천 200TEU급 메탄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아네 머스크호'에 이어 3분기에는 세계 최초로 선박

용 암모니아 엔진을 개발했다. 기존 선박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국제 해운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최초의 역사를 써가는 HD현대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선박 추진체로 활용하는 SMR 추진선박도 개발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로 완전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가치와 비전의 공감

이혜성 아나운서의 내레이션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들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데, 선박 영업, SMR, 메탄올 엔진, 건조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와 가치를 전한다. 단순히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깨끗한 바다를 다음 세대에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힌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기술적 성과 공유에서 확장해 HD현대의 비전과 철학도 담았다. 내일의 바다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원적 질문을 던지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간다. 시리즈는 조선해양 부문을 시작으로 HD현대가 집중하는 3대 핵심 사업 축인 산업기계와 에너지 부문의 이야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리즈를 통해 HD현대가 각 사업 영역에서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워진 울산 HD FC

지난 시즌에 K리그 3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울산 HD FC가 2025시즌을 맞아
한층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얼굴들

울산 HD FC는 먼저 선수단 개편에 집중했다. K리그에서 검증된 이희균, 허을, 강상우, 이진현, 서명관, 이재익, 윤종규, 박민서, 윤재석을 영입해 전 포지션의 전력을 보강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왕어 마티아스 라카바와 브라질 1부 리그 출신 공격수 에릭 파리아스를 영입하며 외국인 선수진도 강화했다. 이로써 울산은 젊고 기동력 넘치는 스쿼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코칭스태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21년부터 팀을 이끌어온 조광수 코치가 수석 코치로 승격했으며, 폰세카 코치가 유럽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술 코치를 맡았다. 여기에 김판곤 감독을 보좌할 코치진으로 박주영이 합류하며 지도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김판곤 감독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에서 함께했던 조준호 골키퍼 코치와 박지현 피지컬 코치도 울산의 새로운 시즌을 함께한다. 새로운 울산을 향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수들은 경기력으로 그 우려를 씻어냈다.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가 빠진 자리는 장신 스트라이커 허을이 완벽하게 메우며 개막 후 5경기에서 두 개의 결승골을 터뜨렸다. 또한, 초반 조현우의 안면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골문은 현대고 출신 골키퍼 문정인이 세 경기 연속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K리그 3년 차보 아니치는 '삼일절 현대가 더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현재 K리그1 최다 도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새롭게 영입된 마티아스 라카바 선수



새롭게 영입된 허을 선수

울산은 3월 4주차 기준 5경기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K리그1 2위에 올라 있다. 아직 33경기가 남아 있지만, 개막 후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며 K리그1 최저 실점 팀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6득점으로 리그 공동 3위에 올라 2023시즌(63득점), 2024시즌(62득점)에 이어 올 시즌에도 리그 최다 득점 팀 자리를 노리고 있다.

클럽 월드컵 트로피

클럽 월드컵 트로피 투어가 3월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열렸다. FIFA(국제축구연맹) 레전드로 초청된 에스테반 캄비아소와 함께 울산 HD FC의 김광국 대표이사, 김판곤 감독, 주장 김영권이 참석해 대회 홍보와 팀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클럽 월드컵 트로피가 공개된 이날 행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리며 기대감을 키웠다.

김판곤 감독은 "실제로 트로피를 보니 실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온다.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이 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후 클럽 월드컵 트로피는 3월 9일



클럽 월드컵 트로피 소개

울산의 홈구장 문수 축구경기장을 찾아 K리그1 4라운드를 찾은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다. 경기장 외곽에는 포토 부스가 마련돼 많은 이들이 트로피와 함께 영광의 순간을 기념했다.



세계적인 탱고 듀오 기예르모 데 파시오와 조반나 단

Tango Argentina in Ulsan

2025년 4월, 울산에서 아르헨티나 탱고의 열정과 예술성이 가득한 무대가 펼쳐진다.

울산에 상륙한 탱고의 정수

아르헨티나 탱고의 진수를 선보일 탱고 아르헨티나(Tango Argentina) 공연이 오는 4월 23일(수) HD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탱고 듀오 기예르모 데 파시오와 조반나 단을 포함한 6명의 댄서가 무대에 올라 오리지널 탱고의 정수를 보여준다.

GD Tango로 활동하는 기예르모 데 파시오와 조반나 단은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온 탱고 듀오다.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TV 광고 및 프로젝트 등의 안무를 맡아왔으며, 미국의 주요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여기에



탱고 댄서 6명의 공연

반도네온, 바이올린, 피아노,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파브리치오 모카타 콰르텟의 라이브 연주와 감성적인 음색을 자랑하는 탱고 가수 이바나 스페란자가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

열정과 즉흥의 춤

아르헨티나 탱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민자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춤이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의 다양한 음악과 춤이 결합되면서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단순한 사교춤을 넘어 파트너와의 긴밀한 연결감을 중요시하며, 즉흥적인 움직임을 통해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기존의 정형화된 춤과 달리, 아르헨티나 탱고에는 고정된 동작이나 패턴이 없다.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음악에 맞춰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그 순간의 감정을 몸짓으로 전한다. 이러한 자유로움이 탱고의 매력을 한층 더 깊게 만든다. 아르헨티나 탱고는 탱고의 홀드 방식도 독특하다. 상체와 머리는 밀착하지만, 다리와 발은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머리와 얼굴이 상대의 어깨 가까이 놓이며, 얼굴이 스칠 정도로 가까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발놀림이 비교적 자유롭고, 이동 시에는 체중을 먼저 이동 지점으로 옮긴 후 발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연 정보]

공연명 탱고 아르헨티나

일시·장소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8시 / HD아트센터 대공연장

관람 등급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

티켓 가격 R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HD현대 임직원 할인 혜택 제공

울산대학교병원, 개원 50주년

울산대학교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 50년의 비전인 'NEXT 50'을 선포했다.



현대해성병원 헌판식 장면

NEXT 50과 다섯 가지 약속

50주년 기념식은 지난 3월 4일(화) 오전에 교직원 행사로 시작했다. 오후에는 지역 주요 인사와 병원 발전을 위해 기부한 시민들이 함께한 'NEXT 50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울산대학교 오연천 총장,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 울산광역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했으며, 울산대학교병원의 5가지 약속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상징적 행사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50주년을 맞아 NEXT 5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 빠르고 정확한 치료 ▲ 내 가족처럼 섬기는 자세 ▲ 필수 의료의 중심 ▲ 전국에서 찾는 병원 ▲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다섯 가지 약속을 공유했다. 박종하 병원장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지난 50년은 도전과 혁신의 역사였다"며 "앞으로는 중증 질환 치료에 더욱 집중해, '최고'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대학교병원만의 특색 있는 경쟁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세기의 도전과 성장

울산대학교병원은 1975년 현대중공업부속병원인 '현대해성병원'으로 출발해, HD현대중공업 임직원과 울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발전해왔다. 1997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도약을 했고, 2015년에는 울산 최초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며 동남권 대표 병원으로 거듭났다. 2017년에는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전환해 진료·연구·교육 역량을 강화했다. 현재 울산대학교병원은 33개 진료과와 950개 병상을 운영하는 전국구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2012년 암센터 개소 이후, 최근 암·뇌·심장 전문병원을 오픈하며 중증질환 진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평가 전국 3위, 의료질평가 7회 연속 1등급, 환자경험평가 3회 연속 전국 TOP10에 오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HD현대 및 울산과 함께 걸어온 지난 50년. 울산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울산대병원 50주년 기념 촬영



현재 울산대학교병원 전경

환절기 건강수칙

환절기의 잔병치레.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글_울산대학교병원 정태흠 교수(가정의학과)

건강한 환절기 나기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때가 되면 잔병치레를 하는 경우가 많다.

환절기에 특히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때 주의 깊게 체크해 봐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춘곤증? 나른하고 피곤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피곤한 증상이 지속될 때는 우선 당뇨병, 갑상선 기능 이상, 빈혈, 감염 같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등도

피곤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질병은 아니지만 스트레스나 약물도 피곤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평소대로 수면시간을 유지하고 식

사하는데도 피곤한 상태가 지속된

다면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일

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하거나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

지는 경우, 혹은 체중이 빠진다면

빨리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



면역력 강화 및 호흡기 건강 관리

환절기에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특히 아침저녁으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

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달걀, 생선, 두부 등)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귤, 키위, 딸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다. 겨울

철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더해지면 감기와 호흡기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

켜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고, 가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를

40~60%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또 손 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



알레르기 및 피부 건강 관리

봄철 꽃가루와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등이 심해질 수 있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옷을 바로 갈아입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KF94 이상)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환절기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가 쉽게 거칠어질 수 있다.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여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물을 하루 6~8잔 이상 마시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소화기 건강과 규칙적인 운동

기온 변화로 인해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화 부담이 가지 않는 따뜻한 음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강차나 유자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돕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겨울 동안 줄어들었던 신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실내에서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통해 근육과 관절

을 풀어주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단,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낮을 때는 보

온에 신경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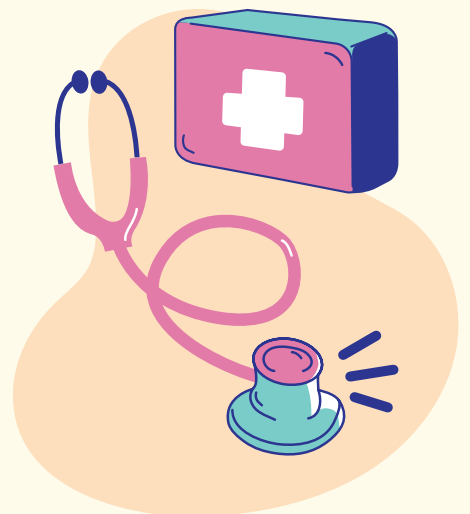


철저한 건강검진과 예방 및 치료

환절기는 면역력 저하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하게 계절을 보낼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늘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하기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에 해로운 것 안 하고 이로운 것을 하는 것이다. 흡연, 과음, 과식을 피하고 금연, 절주, 소식, 운동, 숙면 등의 실천이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생활 습관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표현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만들어 놓길 바란다. 처음엔 조금 힘들더라도 실천을 통해 습관이 되면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활용법

갈등, 과연 나쁘기만 할까. 갈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관련 체크리스트.

글 _ HD현대미포 김주 상담사

갈등의 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하루 중 8시간 이상을 동료와 함께 보냅니다. 오래 있다 보면 사소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혹 갈등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면 구성원들은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감은 물론, 인간관계 역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려, 심리적 불만과 번아웃 등을 증가시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정서적인 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관계 혹은 감정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팀의 업무 성취도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비율이 4:1일 때 가장 높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부정적으로 부딪치는 경험을 한 번 할 때마다 네 번의 긍정적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겪게 될 불가피한 갈등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전을 위한 소통의 기회

직장에서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갈등에 처하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특성, 상황은 어떤지, 객관적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적응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더라도 상사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약속한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부딪힘과 흔들림 정도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 적응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필요하고 유용한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너무 적응을 못하거나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갈등 상황에 적응하려 할 때 무엇이 옳고 중요한지 등을 판단할 자신만의 감각을 내적으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란 장애물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갈등 상황과 마주하면 몸과 마음은 겨울처럼 추워집니다. 갑자기 삶이 암울해지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갈등도 무조건 피하지 않고 현명하게 해결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장시키고 관계도 더욱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갈등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유용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참고문헌 _ 피터 T. 콜먼, 로버트 퍼거슨. (2024).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 마리북스. 정종원. (2023). 조직 내 갈등관리, 의사소통, 조직침묵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7권 제4호, 29-54.

[갈등 적응 자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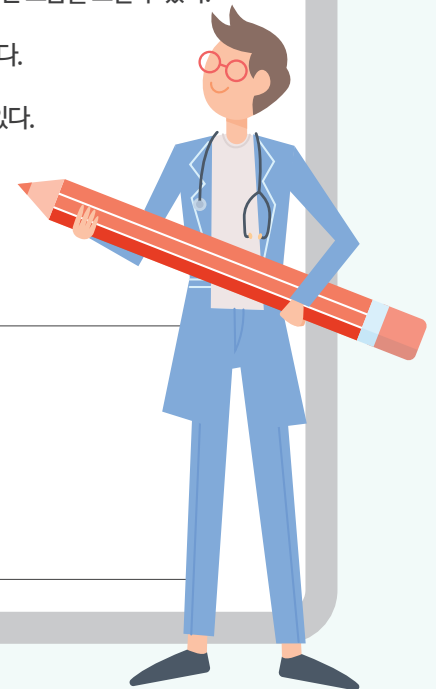
다음 질문에 아래 숫자로 답해 보세요.

1 전혀 아니다 / 2 아니다 / 3 보통이다 / 4 그렇다 / 5 매우 그렇다

- ☐ 나는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된다면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갈등 전술도 때때로 사용할 것이다.
- ☐ 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단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나는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나는 갈등 상황에서도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거의 없다.
- ☐ 나는 내 커리어의 성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
- ☐ 다른 상황일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종종 아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 ☐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 능숙하다.
- ☐ 때때로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내 의견이나 업무 처리 방식을 조정한다.
- ☐ 나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상황들로 바뀌면 그에 맞게 내 행동을 바꾸기가 별로 어렵지 않다.
- ☐ 나는 업무상 필요할 때 갈등 상황에서 매우 지배적일 수 있다.
- ☐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나약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 ☐ 나는 필요하다면 업무 갈등 상황에서 대립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업무 갈등 상황에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다.
- ☐ 나는 평생 폭넓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해왔다.
- ☐ 나는 시도하면 대체로 성공한다.

채점

- 40점 미만 갈등 상황에서 적응력을 거의 발휘하지 않는다.
- 40~49점 갈등 상황에서 적응력을 발휘하는 전략으로 기울고 있다.
- 50~59점 갈등 상황에서 적응력을 발휘하는 전략을 꽤 많이 사용한다.
- 60점 이상 갈등 상황에서 과도하게 적응력을 발휘한다.



기후감수성, 원포인트업

1. 기후감수성

기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감수성은 뜨거워진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다. 특히 소비, 비즈니스, 공공 영역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소비: 날씨가 바꾼 생활 패턴

늘 먹던 생선과 과일의 생산 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열대과일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한반도에서 흔하던 사과는 재배지가 북상해 금(金)사과가 됐다.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어획량도 급감했다. 날씨를 불문하고 '레이니룩(Rainy Look)'이 대세가 되는가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양우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뜨거운 해변보다 서늘한 지역으로 '쿨케이션(Coolcation)'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비즈니스: 기후 서비스의 부상

에너지 물가가 크게 오르며 건축·인테리어에서는 냉·난방비를 줄여주는 '고 단열 창호', 에너지 절약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차량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는 '나노쿨링필름', 차량에 갇혀 저체온증 및 열사병에 걸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실내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 푸드업계는 극한의 더위나 추위를 이겨낼 슈퍼 식품을, 보험사는 일기예보가 틀리면 보험금을 제공하는 기후 상품을 출시했다.

공공: 기후 복지의 필요성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회적 기준이 재검토되고 있다. '장마' 대신 '우기'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고, 식목일 일자 변경, 기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 및 정부기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혁신 기술을 적극 개발하며, 장기 산불위험예보 등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구성원을 극한의 날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후복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2024년, 역대급 무더위로 기후감수성이 부상했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원포인트업(One Point Up)이 등장했다.

2. 원포인트업

원포인트업은 위대한 인물을 롤 모델로 삼아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보다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며 조금씩 성취감을 쌓아가는 태도를 의미한다. 크게 자기지향성, 도달가능성, 기록과 공유 등의 요소로 원포인트업을 살펴볼 수 있다.

자기지향성: 성공의 기준은 천차만별

롤 모델의 성공 공식을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성공 법칙을 찾는다. 나다움을 찾기 위해 개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 패션 등을 추천해주는 스타일링 서비스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공채보다 직무 중심의 특채를 자주 뽑고, 직원 역량 향상을 조직의 성과로 연결해 직원에게 일대일 업무 코칭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도달가능성: 실천 가능한 한 가지에 집중

예전에는 성공을 위해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했다. 자기 삶을 주도하고 끊임없이 쇄신해 나를 완전히 바꾸고자 한 것. 하지만 이는 책 속에서나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이제 작더라도 단기간에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선호한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내가 반드시 이뤄낼 수 있는 자기계발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록과 공유: 노력의 결과물을 꾸준히 기록

소셜미디어에 일상의 노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과 공유한다. SNS에 나의 성취를 올려 과시하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 실천한 작은 노력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둠 속, 희망을 켜 가족

비좁은 다세대 주택, 불이 꺼진 채로 시간이 흘렀다. 주방의 전등은 더 이상 켜지지 않고, 정숙 씨는 작은 스탠드에 기대 딸을 위한 저녁을 준비한다.



두 딸을 위해

정숙 씨(가명, 50세)는 두 딸과 함께 살아간다. 지적장애가 있는 그녀는 가정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집안일도, 아이 양육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과거, 대구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

2002년 첫째 다연이를 낳고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왔으며, 남편과 함께 과일 장사를 했다. 그리고 2009년 둘째 다정이를 맞이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정숙 씨는 집에서 양육을 전담하고, 남편이 근로 활동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던 남편은 점차 술에 의존했고, 가족 간 갈등도 깊어졌다. 결국 2015년, 끝없는 다툼 끝에 정숙 씨는 이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홀로 두 딸을 키우기 시작했다.

불가능했던 현실

지적장애 3급의 정숙 씨에게 경제 활동은 쉽지 않다. 복잡하거나 신속한 업무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고, 지원금으로 두 딸의 용돈을 주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다. 공과금, 식비, 생필품을 해결하면 통장은 다시 텅 비었다. 저축은 커녕, 예상 외의 지출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고맙고 미안한 딸

첫째 다연이(가명, 22세)는 올해 대학교 4학년이 됐다. 홀로 타지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비와 자취비를 감당하는 든직한 맏딸이다. 혼자 지내야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정숙 씨에게 다연이는 늘 고맙고 자랑스러운 딸이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취업 준비에 몰두할 시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고생하는 다연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둘째 다정이(가명, 16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학업에 열중하다가도 방학 동안에는 스스로 식사를 챙기고, 엄마가 넣어 둔 빨래를 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엄마를 돕고 있다.

현실처럼 어두운 주방

그들의 다세대 주택은 부엌과 거실, 작은 방 두 개가 전부다. 10년 넘게 살아오며 집은 낡아갔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겼다.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구를 몇 차례 갈았지만, 다시 깜빡였고 결국 꺼져버렸다. 그때서야 단순한 누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물은 전선까지 스며들었고, 결국 주방의 불이 완전히 꺼졌다. 어두운 주방, 정숙 씨는 주방 한구석에 작은 스탠드를 켜고 요리를 한다.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칼을 들고, 조심스레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 물론 주방을 수리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민조차 사치일 뿐. 막막한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에 기대어 다정이를 위한 요리를 하고, 애써 웃으려 노력한다.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꿈꾼다

삶이 힘들지만, 정숙 씨는 웃는다. 웃으며 버텨낸다. 서툰 손길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족센터를 통해 집정리를 배우고, 조금씩 공간을 가꾸어간다.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다정이는 집안일을 배워 엄마를 돕고 싶어 한다. 엄마를 위해 더 밝게 웃고, 더 씩씩하게 행동한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많다. 불 꺼진 주방, 늘어가는 생활비, 그리고 딸의 교육비. 정숙 씨는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럼에도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는다. 작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런 엄마를 위해 딸들도 애를 쓴다. 어두운 오늘이지만 밝은 내일을 위해 가족은 한 걸음씩 나아간다.





고려산 전경

로컬 재발견

봄꽃향기와 역사가 깃든 봄날의 강화도를 만나다!

글&사진_여행작가 백상현

인천 강화도는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일몰, 마니산을 비롯한 높고 낮은 산들, 그리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사계절 내내 여행하기 좋은 곳이지만, 특히 봄에는 자연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색채로 물들어 더욱 아름답다. 진달래 꽃 만개한 산에 올라 봄이 선사하는 자연의 색채에 취해 보고, 고즈넉한 천년 사찰에서 바쁜 마음을 내려놓아 본다. 또한 작은 미술관에서 예술의 향기에 취하고, 옛 모습 남아 있는 작은 동네에서 추억을 돌아보고, 일몰의 색채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변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 강화도로 떠나보자.



진달래꽃 만개한 고려산 꽃길

강화읍에서 약 5km 떨어진 해발 436m의 고려산. 이곳은 고구려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태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역사 깊은 산이다. 원래 이름은 오련산(五蓮山)으로, 고구려 장수왕 시절 천축조사가 다섯 색깔의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오련지'를 발견한 데서 유래했다. 이 연꽃들을 하늘에 날려서 떨어진 자리에 연꽃 색깔을 따라 다섯 사찰을 각각 세웠는데, 적련사(적석사), 백련사, 청련사, 황련사, 흑련사이다. 다섯 색깔의 연꽃이 피어났던 오련지는 지금도 고려산 허리 즈음에 잘 보존돼 있다. 고려산이 유명한 이유는 봄이면 산 전체를 뒤덮는 진달래 군락 때문이다. 산 정상에서부터 산자락까지 펼쳐지는 진분홍빛 진달래는 한 폭의 그림처럼 신비롭고 아름답다. 정상 전망대까지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편하게 오를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온 산을 물들인 진달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전등사

천년 사찰 전등사와 죽림다원

전등사는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시대에 창건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다.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정족산 사고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대웅전(보물 178호), 약사전(보물 179호), 범종(보물 393호) 등 귀중한 문화재들이 보존돼 있다.

남문을 통해 경내로 들어가면 천년 사찰답게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들이 곳곳에서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오랜 사찰의 운치를 더해준다.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온 두터운 노송나무와 동자승나무는 천년 사찰의 풍성한 이야기 거리 중 하나다. 과도한 공물로 고초를 겪던 전등사에서 도술이 뛰어난 백련사의 추송스님이 두 그루 은행나무가 앞으로 천년 만년 열매를 맺지 않게 해달라고 기원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두 은행 나무는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

커다란 두 은행나무를 지나면 넓은 마당에 목재 테이블이 여유롭게 자리한 전통차집 죽림다원이 있다. 직접 끓인 쌍화차와 대추차, 연꽃방 등의 간식을 즐길 수 있으며, 오래된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 아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전통 도자기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봄 풍경을 감상하는 순간, 일상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온이 찾아온다.



죽림다원



전등사 경내

한옥카페 도솔미술관

전등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한옥카페 '도솔미술관'은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아담한 마당에는 색색의 봄꽃들과 멋진 자태의 소나무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눈발이 펼쳐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어 도심 속 갤러리와는 또 다른 정겨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도솔미술관에서는 사진, 회화, 서예, 도자기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이 전시되며, 계절마다 새로운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전통 한옥의 창을 통해 바라보는 강화의 평화로운 시골 풍경 또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다가온다. 한 잔의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하는 순간,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



도솔미술관

옛 마을의 정취 가득한 교동도 골목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교동도는 오랫동안 민간인 통제구역이었던 덕분에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다. 2014년 교동대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더욱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특히 대룡시장은 교동도를 대표하는 여행지로, 6.25 전쟁 당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떠올리며 조성한 곳이다. 시장 안에는 곡물 가게, 전통 빵집, 이발소 등 1960~70년대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1박 2일'을 비롯한 TV 예능과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곡물을 파는 상점, 맛난 빵과 음료를 파는 카페, 방앗간, 이발관, 레트로한 벽화들이 감성을 자극하고, 웅기종기 붙어있는 낮은 지붕의 단층 건물들이 정겨운 분위기를 더한다.



교동도 골목의 모습



교동도 골목의 모습



강화성당 전경

종교 문화의 성지 강화도

강화도는 선사시대부터 불교, 유교,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종교 문화의 성지'로 불린다. 그중에서도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은 독특한 건축미로 주목받는 곳이다.

1900년 완공된 이 성당은 한국 전통 한옥 양식과 서양의 바실리카 양식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물로, 마치 언덕 위에 배가 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외부는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성당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불교 사찰을 연상시키는 범종과 보리수나무가 있어 더욱 흥미롭다. 서양에서 유입된 기독교와 한국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장화리 해변에서 바라본 일몰

서해안에 위치한 강화도는 특히 아름다운 일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장화리 해변은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다.

썰물 때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과 작은 바위섬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며, 붉게 물든 노을빛이 유화처럼 수면 위로 퍼져 나간다. 하루의 끝자락,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순간, 강화도의 봄 여행은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장화리 해변의 일몰

눈 떠보니 신입사원

Ep.5 우리 손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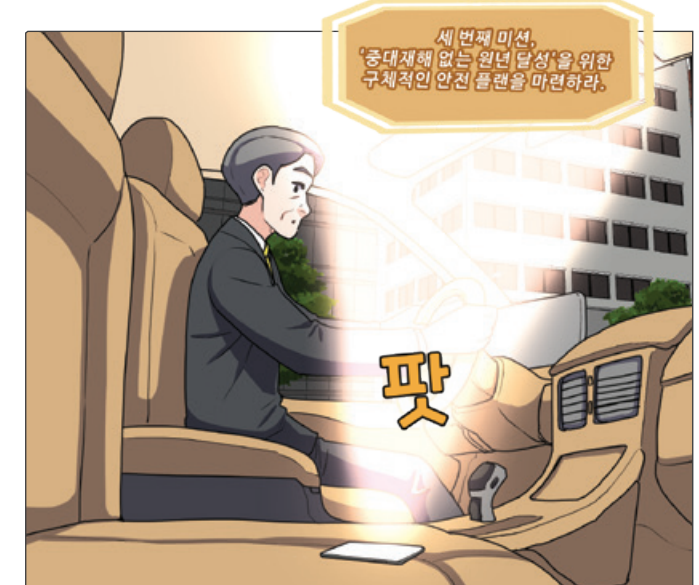
인증현은 2023년 안전 담당임원으로 새로운 미션을 받게 된다.

거듭되는 미션에 중현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 가는데...

가족과 다름없는 임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현의 힘찬 도전이 또 다시 시작된다!

지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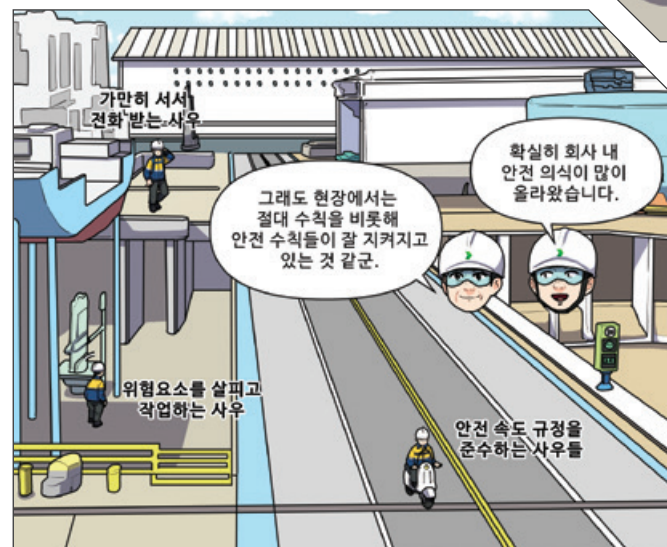
존중·도전과 관련한 쉽지 않은 미션들을 차근차근 잘 해결한 인증현, 그의 다음 미션은 무엇일까?



눈 떠보니 신입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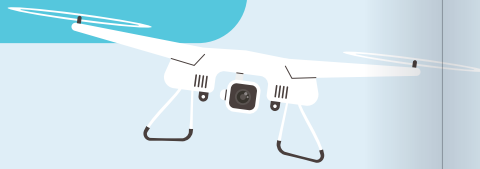
Ep.6 모두를 위한 안전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현장에선 늘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인증현은 모두를 위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새기며 세 번째 미션을 차근차근 풀어나간다.



세 번째 미션 클리어, 당신은 이제 2034년으로 갑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또 다른 나, 드론



처음 드론을 접했을 때의 설렘을 기억한다.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조그마한 장난감. 그러나 처음 컨트롤러를 잡는 순간 느꼈던 전율. 내가 조종하는 대로 하늘을 누비는 드론을 보고 있으면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여느 아버지처럼 일과 가정에 충실하며 평범하게 나이를 먹어가던 나는, 드론을 접하면서 까맣게 잊고 있던 지난 날의 열정을 되새겼다.

아들의 드론으로는 광활한 하늘을 마음껏 날아보고 싶다는 열망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드론 관련 정보를 모으고, 동호회에도 가입했다. 이룩 시간, 촬영 기술, 카메라 성능, 안전장치 등. 조그마한 기계에 어쩌면 그렇듯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지. 나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드론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드론 공부를 이어 갈수록 눈은 높아졌다. 그러나 수백만 원이 넘는 드론을 구매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신제품 출시만을 기다리며 용돈을 모으고, 드론 자격증도 취득했다. 인내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2년 후, 꿈에 그리던 드론을 구매했다. 그동안 모은 용돈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종일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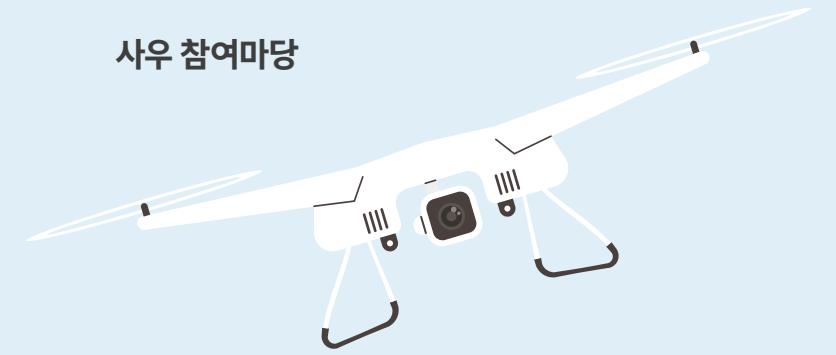
새로운 드론은 그야말로 신문명이었다. 장난감 드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긴 이룩 시간과 다양한 기능 등은 나의 삶을 긴장감과 성취감으로 채웠다. 자유자재로 하늘을 가르며 피사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고, 자연스레 편집에 흥미를 느껴 관련 프로그램을 구해 영상물을 직접 작업했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들인 작업물을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면, 응원과 칭찬이 쏟아졌고, 더 좋은 제작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쳤다.

사고는 안일함과 오만함에서 시작된다. 자신감에 취해 드론을 날리다 나뭇가지와 충돌했다. 기체가 부서지진 않았으나, 만약 사람과 충돌했으면 그야말로 사고였다.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날의 충돌 이후, 하늘을 맘껏 누리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3년 넘게 드론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해상 시운전 중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익숙한 시운전 선박이지만, 드론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던 그날은 나의 드론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전문가는 달랐다. 그들의 수준은 동호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감탄사를 터뜨리며 그들의 운전 능력과 촬영 기술에 넋을 놓았다. 쉽지 않아 보였으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육지와 해상의 비행은 차원이 달랐다.



안타깝게도 그날 나의 드론은 완파되고 말았다. 엄청난 수리비가 나왔으며, 조금만 더 차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후 시운전 시 드론을 띄웠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촬영을 이어갔다. 그때의 경험과 결과물은 내 드론 실력을 한층 성장하게 만들었다. 나의 제작물을 본 선주가 촬영을 부탁하기도 했다. 최선을 다해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제작물을 전했을 때 선주의 얼굴에 번지던 미소가 아직도 또렷하다.

아직은 취미 생활을 즐기 위한 자격증만 갖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1급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자 한다. 전문가가 되어 역동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나아가 인명 구조 등 봉사활동도 하고 싶다. 드론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선부르게 도전했다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드론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내가 아는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자격증 취득이다.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에 드론 자격증 관련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급수가 올라갈수록 금전적인 투자 또한 필요하지만, 취미 정도로 즐길 생각이라면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둘째, 적절한 드론을 구매해야 한다. 크기, 기능, 비행 시간, 조종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처음 드론을 접한다면 센서형을 추천하며, 기술을 숙련하고 다이내믹한 비행을 원한다면 FPV형도 괜찮다. 요즘엔 초보자도 쉽게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이 많이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 자신에게 맞는 기종을 찾아보길 바란다.

셋째, 구입한 드론에 맞는 조종법을 학습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숙련자의 도움을 받으면 1시간 정도의 교육에 기본적인 조종기의 기능과 조작법을 익힐 수 있다. 유튜브나 동호회에도 관련 정보가 잘 나와 있으니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드론을 날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비행 전 주변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비행 제한 구역과 공공장소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때와 장소에 따라 사전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날씨를 고려해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적절히 거리를 두고 드론을 운용한다면 안전한 비행을 즐길 수 있다.



HD현대삼호 선박커미셔닝부
강정혁 조장



봄호 QUIZ

각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QUIZ

1

HD현대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000)**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000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

2

000는 영하 163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극저온 상태의 **000**를 장시간 저장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탱크가 필요하다.

3

울산에 위치한 **000 000 00**(GDC)는 선박 스마트십 솔루션(ISS), 통합 제어 시스템, 선박 사이버보안 등 조선산업의 새로운 선박 디지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술의 산실이다.



지난 호 정답

① 정조대왕함 ② 권선 ③ 샵프리 필름

퀴즈 응모 방법

퀴즈의 정답을 5월 30일(금)까지 QR코드(또는 하단 링크) 접속 후 작성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https://forms.gle/So8XXDkvygFzx7Nx5>

※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당첨된 사우에게 상품 수령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2025년 겨울호 퀴즈 당첨자 선정

치킨 기프티콘(2만원권)

김세진 HD현대중공업 생산SCM2부
이민주 HD현대사이트솔루션 XiteCloud팀
서연미 HD한국조선해양 커미셔닝솔루션부
류재일 HD현대마린솔루션 제어시스템부
최민영 HD현대건설기계 조립부
하진명 HD현대상호 자동화개발과
조현삼 HD현대미포조선 선체조립부 조립2팀
오석현 건명기업
서정균 HD현대중공업 제품화실
류용재 HD현대이엔티 건설기계설계부

커피 기프티콘(1만원권)

이상현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시운전부
김선영 HD현대이엔티 일렉트릭설계부
곽세종 HD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생산부
김달호 HD현대인프라코어 전장설계팀
최미정 HD현대중공업 판넬조립2부
권승비 HD현대사이트솔루션 수출물류팀
조인현 HD현대일렉트릭 회전기생산부
권지훈 HD현대중공업 시스템품질경영부
이윤지 HD현대이엔티 의장설계2부
최원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시운전부

김진서 HD한국조선해양 스마트워크팀
원동휘 HD현대중공업 총무부
김재연 HD현대건설기계 생산운영부
변종욱 HD현대인프라코어 대형엔진파트
백정훈 HD현대사이트솔루션 DFSS추진팀
김홍수 HD현대상호 공사지원부
권수현 HD현대중공업 구매기획부
박권식 HD현대상호 시스템1파트
정호일 (주)영운 도장1부
백호현 HD현대일렉트릭 구매부

2025년 상반기! 나의 실천 다짐

2025 겨울호에서 임직원의 다짐을 받았다. 그중 3인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소개한다.

다짐한 것들, 이제 실천합니다!



HD현대중공업
김도윤 선임매니저(해양생산지원부)

아버지와 단 둘만의 여행

2025년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울까 고민하다 '아버지와 단 둘만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여동생과 종종 여행을 떠나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둘만의 여행을 제안하셨거든요.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해오신 아버지. 올해 상반기에 둘만의 여행을 떠나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누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버지들 올해도 힘내십시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김미현 사원(수출물류팀)

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

처음에는 국제무역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만 생각했어요. 업무를 하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했고, 제대로 도전해보려 합니다. 무역 용어나 개념들이 생소해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나씩 익히거나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 같아요. 4월에는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돌입해 실전 감각을 키우고, 5월에는 시험장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번 도전이 단순 시험 준비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HD현대미포
강성근 기사(선체조립부)

폴코스 마라톤 싱글 달성

2025년, 다시 한번 제 한계를 뛰어넘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목표는 폴코스 마라톤 싱글 달성입니다. 5월에 열리는 보성녹차마라톤에서 기록을 넘고 더 발전한 저를 만들고자 3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10km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서 몸을 끌어올리고, 한 달에 250~300km 이상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4월에는 주말마다 LSD 장거리 훈련을 하면서 체력을 다지고, 하프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해 최고 기록을 갱신해보려고 합니다. 5월에는 대회를 앞두고 짧은 조깅과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조절한 뒤, 보성녹차마라톤에서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는 서브3(기록 3시간 미만) 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